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자연경관 사찰공식 전람실
감로당
 김현원 관변제단을 사용하여 받들었다.
 *예약: 02)3210-3397 / *유지: 정경마을은 교육 100m *주말 휴무

석조문화재 관리 '빨간불'

문화재청 국감 경북지역 경우 절반이 훼손 심각

불교 석조문화재 관리에 이상이 걸렸다. 9월 2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경북지역 석조문화재 50%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문화재 전문가들은 전국에 선재해 있는 석조문화재 상당수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불교석조문화재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감에서 심재권(민주당) 의원은 "감은사지 3층 석탑은 지난해 동탑의 옥개석이 탈락한데 이어, 현재 석탑의 옥개석도 파괴된 상황"이라며 "2002 상반기 정기점검 때 이상 없었던 석탑이 하반기 점검에서 옥개석 탈락위기로 진단받은 것은

정기점검이 허술하다는 증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신영균(한나라당) 의원은 "문화재청은 2001년 경북지역 석조문화재의 50%가 훼손이 심각한 4-5 등급으로 판정받고, 1-2년 이내에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지만, 아직 제대로 점검도 실시한 적이 없다"며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중앙문화재전문위원인 박경식(단국대 교수)은 "이런 결과는 경북지역 석조문화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석조문화재 대부분이 워낙 오랜 시간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적 요인이나 지반침하 등으로 석조문화재

"경전도 보지 않고 좌선도 않으면서/말없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어떤 중추(宗趣)인가/바람 흐르지 않는 곳에 바람 남치고 있으니/푸른 산봉우리에 천년 빼어난 고송(古松)이로다"

근대 한국불교계의 큰 스승이었던 한암 중원선사께서 고송 중원선사에게 내린 전법계를 번역한 것이다.

지난 9월 22일 한국 불교계의 거목이 한그루 쓰러졌다. 그 나무는 천년 묵은 고송이었다. 고송은 경망한 마음에 뛰어넘을 수 없는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 준다. 때문에 고송을 보는 것만으로도 3독에 가려 힘떨어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고송은 세월의 풍상을 겪으면서



도 지조를 지킬 수 있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기에 어렸을 적 뛰어놀던 자상한 할아버지의 무릎을 생각하게 한다. 그런 고송이 쓰러졌다.

형상 없는 '천년 古松'

필자는 십여 년 전 오대산 월정사에서 스님을 뵈고 동해안 낙산사와 신흥사를 함께 여행한 적이 있다. 당시 스님은 눈빛이炯炯했으며, 청빈함이 묻어나는 감색을 들인 승복을 입고 계셨다. 곱게 기 불교인이 되지 말라는 경색은

지금도 생생하다. 조계종 원로의원은 5일장을 하는 것이 관례다. 그렇지만 스님의 장례는 유언에 따라 3일장으로 간소하게 마쳤다. 남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태평으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생각에서다. 마치 막까지 출가자의 본분과 보살정신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오교가는 것이 없는 것이 법신이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오교가는 것을 보이는 것 역시 법신의 속성이다. 그래서 보임과 보이지 않음이 들어 아니다. 이제 형상의 고송은 쓰러져 우리를 곁을 떠나 갔지만 무형상의 천년 고송이 미망 중생들을 인도할 것이다.

차차석(본지 상임논설위원)

정부, 북한산 해법 공론조사 제의

조계종, 환경단체 의견 수렴 최종 결정

북한산 관동도로 해법으로 정부가 공론조사를 제의했다. 그러나 불교 환경·사회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환경·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조사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기로 함으로써 그 결과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9월22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의 정외대 오찬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북한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관련기사 3번**



'천성신을 살립시다' 천성신을 지키기 위해 여성성직자들이 나섰다. 불교, 천주교, 원불교 여성 성직자들은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강행에 항의하며 9월 26-10월 8일 13일간 부산역에서 천성산 정상 화엄봉까지(총 50Km) 삼보일배를 정진한다. 사진은 첫날 부산역을 출발한 비구니 스님 등 여성성직자 50여명이 삼보일배를 하는 모습. **관련기사 14번** 사진=천미희 기자

군승특별교구 설치 본격 추진

조계종, 위원회 구성... 위원장 성광 스님

군포교 활성화 위한 군승특별교구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는 9월 23일 서울 조계종 포교원 3층 회의실에서 제13차 상임회의를 갖고 '가칭' 군승교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군승특별교구 설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군불교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칭)군승교구추진위원회 위원장에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성광 스님을 선출하고,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군불교위원회는 우선 승려법, 법계법, 교육법 등 관련 종편·종법령 제·개정 손질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10월 중순경에 군승특별교구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경남: (055)363-1196 제주: (043)644-4366 경남 서부: (055)547-3469

수재민들 고통 덜어주세요

조계종·불교계 언론사들 모금운동

태풍 '매미'는 너무나도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비실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 조계종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수재민 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을 벌입니다. 수재민들이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부채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불자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대한불교신문사·법보신문사·불교신문사·주간불교신문사·현대불교신문사
 ▶입금계좌: 국민은행 023-25-0011-991(재)불교중앙교원, 통행 053-01-239894(재)불교중앙교원
 *성금 접수처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735-5864)

감동의 신행체험수기 공모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9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속에만 콕콕 담겨있던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인 신수회 회장이 신선행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 주제: 일삼속의 신행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4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접수처: (110-170) 서울서 종로구 권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uswhy@buddhapia.com
- 접수 마감: 12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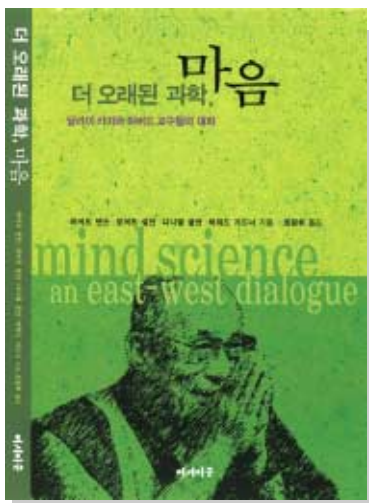
200자 원고지 30매... 12월 13일 마감

- 시상내역
- 대상(유마상)
- 우수상(분사 사장상)
-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권지동 110-33 Tel : (02)737-8881(대)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명상은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 미국인 천만명 '명상 붐'
 - <타임>지 최근호 보도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타임>지 최근호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 행동의학과 허버트 벤슨 박사가 연구한 명상할 때의 뇌상태 결과를 소개하는 등, 명상이 심장병, 암 등의 만성적인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등 심적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명상요법이 널리 활용

마음과 몸의 심대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계를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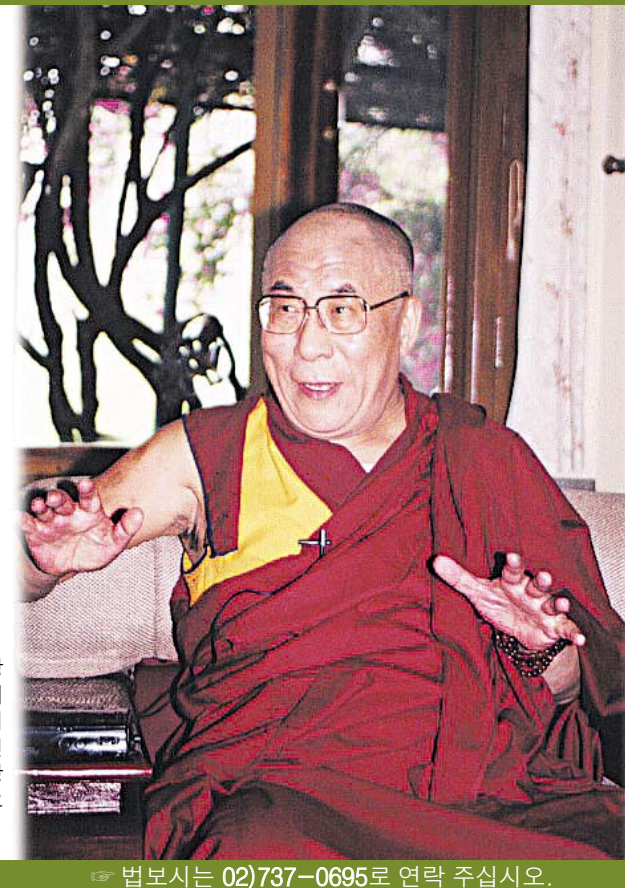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된다 연구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를 대표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와 하버드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 마음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다.

달라이 라마

"마음은 정신적 사상이 상호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법보사는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mind science